공동체 소식

연중 제30주일

아버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시며,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니, 저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성자의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오로지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게 하소서.

▣ 10월 기도지향

-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가정**
- **김병철 베네딕토,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가정**

☞ 11월 기도지향 가정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가정

▣ 묵주기도 성월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 성월'을 제정하시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11/7(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11/8(토) 오전 10시, 묵주의 기도 후 미사

▣ 동남부 사제모임

- 일시 : 10/27(월) ~ 10/31(금)
- 장소 : 애틀란타 한인 성당

☞ 화,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 일시 : 10/31(금) 오후 7시
- 장소 : Shawnee Civic Center
  13817 Johnson Dr. Shawnee, KS 66216

▣ 기타

- 10/26(일) 중심미사 후, 구역회의가 있습니다.
- 11/2(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 해제됩니다.
- 이우석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어린이용 식탁의자(4개)를 기부하셨습니다.
- 사제관/회관 Deck 철거 후, 업체를 통해 보수공사가 10/20(월)부터 이틀간 계속 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 1,000불 예상.
- 교무금은 점심식사 전, 재무 위원들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46	513	166/168	416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서정문 토마스
		김민영 크리스티나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배복선, 박정자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19	70명	386불	1060불
김호원, 감영진, 한봉경, 김병철, 김화년, 고영방(총 6세대)			

연중 제30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4년 10월 26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연중 제30주일인 오늘은 시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계명의 참뜻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집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의 가장 풍성한 계절인 이 시월에 과연 얼마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는지, 또는 자신만 돌보는 데 골몰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면서 이 미사에 정성껏 참여합시다.

그림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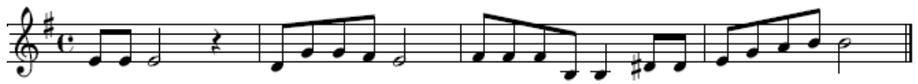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탈출 22,20-26 <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

화 답 송 :



○ 그지없이 사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힘이시여
하느님은 저의 반석 저의 성채 저의 구원자시오니. ◎

○ 저의 주님 이 몸 숨겨 주시는 바위시여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산성이시여
찬미하올 주님을 저는 부르면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되오리다. ◎

○ 주님께 만세 만세 내 바위를 찬양하여라.
날 구하신 하느님을 높이높이 찬양하여라. ◎

○ 당신께서는 임금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비를 내리셨나이다. ◎

제 2 독 서 : 1테살1,5ㄴ-10
<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 마태22,34-40 <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쉐 마

"사랑하기"

내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무슨 낙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초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의미를 두며, 어떻게,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하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내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상호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이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위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불행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이웃의 아픔과 도움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웃 사랑이 정말 하느님께서부터 나오는 그런 성숙되고 진실한 사랑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 희생조차도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의아함이나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느님은 우리들을 대견하게 보시며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기준과 가치로 살아간다면 궁극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입니다. 세상이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좋은 '사랑하기'가 안타깝게도 일상에서는 시기와 질투, 탐욕에 뒤처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화, 짜증, 불만, 불평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또 누구를 찾아가 보란 말이야! 세상에는 내가 나눠줘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최소한 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가난은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하기'가 자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를지라도 '사랑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니까요.

'사랑하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주춧돌

제 1 편 하느님 공경

제12-1장 시키는 대로 하여라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요한 2,1-5).

【주석】

여인이시여 :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시 한 번 이 호칭으로 어머니를 부르신다(19,26).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귀네로서, 본디 미혼이든 기혼이든 장성한 여인을 가리키므로 문맥에 따라 '여자, 여인, 아내, 부인' 등으로 옮긴다.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히 히브리 말과 아람 말 등 셈족 말을 하는 지역에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다. 이 호칭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호칭에 상대를 비하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주석 성경, 신약, 360).

【설명】

예수님의 첫 기적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성모님이 먼저 발견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바로 카나에서 성모님의 전구로 이루어졌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시오,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가 성모님을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고, 성모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더 큰 소리로 하느님을 부르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성모님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교회의 가르침】

▶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마리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부터 모든 뽑힌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969항).

▶ 우리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진정한 마리아, 섬세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는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한 처지에 놓인 신혼부부를 보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줍니다(성녀 마더 데레사).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